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농촌 불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도심 사찰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불교 도농공동체인 '불교생활운동본부 생활협동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불교생활은 18일 서울 봉은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봉은사, 능인선원, 수원포교당 생활 등 총 7개 단

체 304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 유역근 발기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불교계에서 생활 운동은 바른 먹을거리를 구하는 일보다는 불교의 연기관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생명운동이고 화합이 강조되는 공동체 운동이어야 한다"며 "나눔을 실현하는 화합운동으

“도시·농촌불자 있는 다리”

불교생활협동조합 창립총회 열려

로 승화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할 시대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생활은 총회에서 정관 및 규약 승인과 △도심사찰이나 포교당을

자 등 홍보 △사찰별 생활준비위원회의 개별 법인화 등을 통한 회원확대 △주말농장 및 체험장 운영 등의 사업계획을 통과시켰다.

또 이사장에 조현숙 전 봉은사 생

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생명·평화·환경위헌 범종교인 기도회 개최

새만큼 간척사업 등 대규모 생명 파괴 사업의 조속한 종단을 위한 '생명·평화·환경을 위한 범종교인 기도회'가 개최됐다.

22일 대한성공회 서울 대성당에서 열린 기도회는 수안스님, 문규현 신부를 비롯한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4개 종교 500여명의 성직자들이 참석했다.

남동우 기자

불교유학 어디로 갈까?

석림紙 소개

불교학을 공부하기 위해 어느 나라로 유학을 가야 할까?

미국 인도 중국 독일 4개국에서 불교학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대학과 연구소는 61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중국은 한문문화권의 본고장, 인도는 빨리어 배우기에 안성맞춤, 미국은 세계불교학자들과 교류에 유리, 독일은 인도학 및 티베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성두 동국대 강사는 "독일의 경우 본 대학 티베트불교, 프라이부르크대학 초기 팔리경율, 괴팅겐대학 아비달마불교, 함부르크대학 대승불교, 빈 대학 불교인식신리학 등의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준호 동국대 강사는 "인도에서 불교 관련학과를 개설한 대학은 델리대 마가다대 잠푸대이며, 빨리어와 불교학과는 켈커타대 바라나시현두

미·印·중·독에 61개 대학·연구소

독일 인도학·티베트불교 연구 적함

트불교 연구가 깊다.

이 같은 사실은 동국대 석림회(회장 보경)가 최근 발행한 <석림> 제16집 기획논단 '불교유학의 길잡이'에서 일미스님(하버드대 석사과정), 안성두(동국대 강사) 조준호(동국대 강사) 김진무(동국대 강사) 씨가 밝혔다.

일미스님은 미국의 경우 '하버드, 위스콘신, 인디애나, 시카고, 하와이 대학에서 불교학이 광범위하게 연구

대, 빨리어과는 마가다대 산스크리트대 뿌나데, 불교철학과는 삼뿌르난드 산스크리트대 등이 있다"고 밝혔다.

김진무 동국대 강사는 "중국 정부가 집중관리하는 불교학자는 임계유(북경도서관) 투우열(북경대) 황심천 양중문 두계문(이상 중국사회과학원) 방립천(인민대) 퇴영해(남경대) 반계명 (소주대학)등 52명"이라고 소개했다.

김원우기자

여성들, 가정폭력 가장 고민

“배우자가 가해” 63%로 최다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가정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 부설 행복한가정상담소가 발표한 '2002년 상담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상담소는 지난 한 해 312건의 상담을 했으며 이 중 55%에 달하는 173명이 가정폭력피해를 상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내용은 신체적 폭력 31%(55명), 정서적 학대 29%(51명), 경제적 학대 24%(43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배우자가 63%(120명)로 가장 많았으며 과거의 배우자, 직계 존속이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피해 상담자를 제외한 139명은 가정생활(41명)과 자녀문제(35명)를 주로 상담했다. 상담 후 가해자에 대한 조치 유형은 선도 상담(198건)과 고소고발(4건) 등이었다.

김묘주 회장은 "가정 내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여수형 기자

“지리산넙 백지화”성명

함양·산청·남원 주민들

경남 함양과 산청, 전북 남원 지역 주민들이 '지리산넙(마천넙) 재추진 백지화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3개 지역 주민들은 20일 결의문에서 "최근 지리산넙을 건설한다는 함양군수의 발언으로 지리산 안에서 하나였던 지역이 분열과 갈등의 조짐이 일고 있다"며 "함양군수는 생태자원의 보고이자 천혜의 관광자원인 지리산을 훼손하고 지역민들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

미륵산케이ابل카 설치

경남 11개 단체, 반대지지

거제시민단체연대회의와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경남시민·사회 11개 단체가 통영 미륵산 케이ابل카 건립반대에 연대의 뜻을 표명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통영시는 적자사업이 될지라도 기필코 케이ابل카를 건설하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케이ابل카를 건설하기 위해 동원한 온갖 권법과 관치 투표 실시에 깊이 반성하고 올바른 지방자치 문화정착을 퇴색시키고 왜곡하는 구시대적 악습을 되풀이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



○통도사영축산환경위원회는20일 양산시청앞에서 초산유원지개발백지화를 요구하는 수행환경훼손 규탄법회를 개최했다.

“초산유원지 개발 백지화 투쟁”

영축산 환경위원회 무차별 자연훼손 규탄대회

양산시청 면담 양측 입장 차이만 확인

20일 초산유원지 개발 백지화를 요구하며 양산시청 앞에서 규탄법회를 마치고 가진 통도사와 양산시청의 면담은 양측의 입장차를 분명히 확인하며 끝났다.

이날 면담에서 통도사측은 시장에게 전달한 요구문에서 "발보종찰 통도사 주변의 수행, 문화환경을 훼손하는 초산유원지 공사와 우회도

로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원상 복구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산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해 설계변경 등 부분적 수정만이 가능한 뿐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적인 얘기만을 반복했다.

면담에 앞서 가진 수행환경 훼손 규탄법회는 500여 사부대중이 참가

한 가운데 영축산 자연환경 파괴 사례설명 및 경과보고, 성명서 낭독, 결의문 낭독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산옹스님은 결의문을 통해 "양산시의 무분별한 자연훼손과 수행환경 파괴를 자행하는 행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전국의 모든 환경단체뿐 아니라 범불교적 연대로 개발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2003학년도 삼화불교대 학생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과 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 별 전 형 30%
개 오 북 지 사 과	2년	■주간 30명 ■통신 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 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 각종단 승려 · 포교사 · 30세 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불 교 학 과 (승려학과)	2년 4년	■주간30명 ■야간30명 ■통신 80명 ■통신 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4년	■주간 30명 ■야간 30명 ■주간 30명 ■야간 30명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합판사진 5매	
포 교 사 과 정	2년	■야간 30명		

2. 학교연혁

1989. 7. 학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 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불교 제갈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2001. 1. 개초복지사과 개설
2001. 9. 중국 한의대 분과 34명 입학
2002. 2. 제1회 졸업생 배출
2002. 9. 중국 남경요정대학(사범대) 분과 개설
2002. 9. 중국 한의대 분과 50명 입학
2002. 11. 중립삼화불교대로 확정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
- 문화계승비 기술자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과정) 입학 가능
- 개초복지사 2급 자격 취득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한의대) 분과 입학 가능
- 중국 남경요정대학(사범대학) 3년전입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2월 20일까지
-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우편 당일 소인유요)

5. 원서교부 및 문의처

- 불교교학과 : TEL. 02)511-2026-8 FAX.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a.com
-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번호 : TEL 047) 376-1321, 132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삼 화 불 교 대

한 의 과 대 학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학 재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영문) ◇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 최종학교 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 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4년대학 학사과정 졸업자)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계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선용 기술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 www.njutcm.edu.cn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3년 2월 20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주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화 : 025-6798167 · 팩스 : 025-6798168

▶ 한국 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
· 전화 : 02-511-2026~7 · 팩스 :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a.com

고 등 학 교 과 정 학 생 모 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과 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 · 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 · 야간

2. 특 전

- 성적 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3. 문의처

①35-8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삼 화 불 교 대